

서대문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회의록

〈회의개요〉

- ▶ 일 시 : 2019. 11. 20.(수) 10:00~12:00
- ▶ 장 소 : 서대문구의회 제1회의실
- ▶ 참 석 자
 - 김정철 위원장, 위정미 부위원장, 김혜미 위원, 이상명 위원, 조충길 위원, 주이삭 의원, 양리리 의원
- ▶ 안 건
 1. 공무국외출장(캐나다, 미국) 결과보고
 2. 공무국외출장(스웨덴, 독일) 결과보고
- ▶ 심의결과
 1. 공무국외출장(캐나다, 미국) 결과보고서 승인
 2. 공무국외출장(스웨덴, 독일) 결과보고서 승인

의 회 사 무 국

서대문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회의록

(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11조에 따라서 2019년도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받기 위해서 모인 자리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성원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사)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성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입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오늘 위원회는 재적위원 일곱 분 중 다섯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김정철 위원장님께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까지 간사이신 의정팀장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성원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덴마크-스웨덴 팀과 미국-캐나다 팀의 2개 팀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팀별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보고를 덴마크-스웨덴팀과 미국-캐나다팀별로 각 대표가 나오셔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덴마크-스웨덴팀이 보고하고 질의답변 이후에 이어서 미국-캐나다팀이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보고방법은 형식에 구애됨 없이 자유롭게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네, 없으시면 먼저 덴마크-스웨덴팀부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덴마크-스웨덴 출장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보고 의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출장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덴마크-스웨덴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 의원) 안녕하십니까. 덴마크와 스웨덴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팀의 대표 발제자로 나온 ○○○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출장을 다녀온 일정을 설명을 드리고 각 다녀온 출장지마다 간단한 설명을 PPT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의원마다의 견해는 출장보고서를 미리 보고오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참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덴마크-스웨덴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보고서 참고)

(위원장) ○○○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는 전체일정, 도시재생분야, 교육분야, 복지분야로 해 주셨습니다. 지금 주이삭 의원님께서 출장결과보고를 해 주셨는데, 의견이 있

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 위원님.

(○○○ 위원) 첫 번째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일정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주이삭 의원) 예

(○○○ 위원) 그러면 그에 따라서 예산변경이 된 것이 있습니까?

(○○○ 의원) 네. 2일차에 원래는 니하운을 마지막날에 가려고 했는데 가는 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고 바로 그날 보면서 지나온 곳이고요. 니하운 설명을 제가 안 드렸습니다. 사실 깔끔하게 설명드리기에는 페인트칠 해 놓고 굉장히 변화한 곳이 되었던 것 외에는 특별히 저희가 감응된 것이 없어서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해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간담회가 원래는 3차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2차를 했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운영하다보니까 3차 간담회를 미쳐 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에 차질이 있었던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다녀와서 최종적으로 출장보고서를 어떻게 할지 준비하면서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깊이 이야기하지 못해서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 외에는 변동된 내용이 없습니다.

(○○○ 위원) 두 번째 궁금한 건데요. 저희가 처음에 심의를 했을 때 보류하고 2차에 서면으로 해서 통과했던 부분인데요.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거였어요. 기관방문시 공문에 대한 부분인데, 공문을 보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걸 쪽 봤는데, 통역에 대한 부분, 유럽은 자기 나라 자국민의 통역 없이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러면 여기 일정이 1일차부터 6일차까지 갔다 오셨는데 그 통역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게 이야기가 없으셔서, 그 두 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원) 통역에 대해서는 저희 1차 때 보고드렸던, 저희가 섭외하고 있었던 분이 있잖아요? 그 분이 영어랑 덴마크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스웨덴에서는 영어로 통역을 해 주셨고요, 덴마크에서는 덴마크어로 통역을 해 주셨습니다. 현지인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현지에서 20여년 이상 거주하셨던 분이셨고, 항공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직을 하고 거기에서 통역을 전문적으로 하시던 분을 섭외를 했었습니다.

(○○○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에서 자국민이어서 통역을 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틀려지던데. 통역이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한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할 때에는, 견학을 할 때에는 가이드가 꼭 붙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부분을 얘기하냐면 그렇게 되면 이해충돌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이 가셨던 의원의 지인이신 거잖아요.

(○○○ 의원) 아니요, 지인 아닙니다. 그 때 말씀드렸던 건 독일이었는데, 독일은 아예 가지를 앉았고, 이분은 저희가 아예 처음 섭외한 분입니다.

(○○○ 위원) 섭외하신 분이요?

(주이삭 의원) 네.

(○○○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주무관) ○○○입니다. 저희가 섭외를 할 때에, 섭외기관을 찾아서 그 분이 통역을

같이하는 업체였는데요. 그분이 주덴마크 영사관 홈페이지를 보면 명단에 있고요, 그분을 통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섭외가 된 부분이고요. 공문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공문을 시행을 했는데, 시간상 직접적으로 전달은 하지 못하고 그 섭외하는 기관에 공문을 전달해서 그분께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 의원) 공문부분은 시간상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다음번에는 확실하게 깔끔하게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제가 질문할 게 있었는데, 이경선 의원님 후기와 의원님 후기에 나오더라고요. 공사현장으로 바뀐 현지사정을 모른채 방문한 아쉬움이 있었던 내용인데, 그러면 여기는 사전에 확인 없이 방문한 겁니까? 원래 출장계획에 들어있던 곳입니까?

(○○○ 의원) 계획상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가고 싶은 곳이어서, 저희가 도보로 가면서 가려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 위원) 그걸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 위원) 왜 제가, 제가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왜 제가 그런 질문을 했냐면요. 토로브 할렌 시장이나 말뫼 살루홀 이렇게 보고를 하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부스별 임대차를 어떻게 하는지 대관이나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한 것,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가 담겨져 나와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 주민이 간 게 아니라 의원이 가신 거니까, 그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듣지를 않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못 들었을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때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관에 대한 것을 제대로 갔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제대로 나왔느냐, 시장을 갔어도, 시장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어야 된다, 그게 아니고 거기에 사셨던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통역해주시는 분이요. 그것과 의원님들의 견학하고는 틀려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 위원님

(○○○ 위원) 3시 30분에 발표하실 때는 ○○○ 의원님이 혼자 하시나요?

(○○○ 의원) 아니요, 개요는 ○○○ 의원님이, 도시재생은 ○○○ 의원님, 교육은 ○○○ 의원님, 제가 복지분야.

(○○○ 위원) 3시 30분에 발표하실 때는, 서대문구의 이런 현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거 때문에 거기에 가서서 그런 부분을 접목해서 살펴보신 거였으니까, 발표하실 때에 그 부분을 먼저 어필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현지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인지가 됐고, 그런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이제 1차 방문이었고, 지금은 좀 넓게 살펴보고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는 2차 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런 걸 어필하시면 더 동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듣는 분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가본 도시들은 모두 평균연령이 낮은 도시잖아요. 그런데 서대문구는 굉장히 평균연령이 높은 도시고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지를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번에 테마를 잡아서 좀 더

발전시켜서 다음번에 공무국외출장 가실 때에는 이번 것을 버리지 말고, 몇 가지 포인트를 생각을 하셔서 집중을 할 수 있는 테마를 여기에서 뽑아내셔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 시면, 자기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함축되게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 조언을 해서, 내년에 가실 때에는 더 욱더 주민들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주민설명회를 하실 때에는 시사점이라던지, 의원님별 로 각 지역에서 느낀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위주로 말씀하시는 것이 더욱 효과적 일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 서대문구에 접목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다 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어반리거 이쪽 설명하면서도 뒤에 영천시장이 있는 천연동, 서대 문역 맛골목과 충정로역 일대 충현동, 아현동 이런 활력있는 상권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 다고 생각해봤다라고 마무리하셨는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공무국외출장의 효과거든요. 이런 측면을 중심으로 보고를 하시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상당 부분이 해소가 돼요. 정말 개요는 개요로 두시고,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 부분 부분에서 느꼈던 것, 서대문구에 어떻 게 접목시켜 갈 것인가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 내용 중심으로 보고를 해 졌으면 좋 겠어요.

(○○○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미국-캐나다 팀도 이런 시사점이 있지 않습니까. 시사점들 중심으로 보고를 하면 그것이 우리 서대문구와의 접촉점이거든요. 주민보고를 할 때에는 그런 쪽으로 역점 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더 이야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스웨덴-덴마크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들) 네.

(위원장) 없으시면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덴마크-스웨덴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서를 승인하겠습니다.

② 미국-캐나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위원장)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미국-캐나다 출장결과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 의원님께서서는 나오셔서 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입니다. 저는 이런 자리가 마련된 데 대해서 대단 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심사하러 와 주신 심사위원님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신인이었던 때를 되돌아보면 저조차도 구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대 단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돈으로 여행을 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갔다 오고서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는 공무출장을 갔다왔다는 것,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과연 관광을 갔다온 것인지 아니면 견문을 넓히고 온 것인지는 저희가 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일정은 생략하도록 하고,

출장인원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캐나다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보고서 참고)

(위원장)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함축된 결과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간단하게 핵심적인 질문을 해 주시죠. ○○○ 위원님부터 말씀하시고...

(○○○ 위원) 정리를 워낙에 잘 하셔서 이렇게 하시고, 가셔서 보시고 질문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하셔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의원님께 한 것처럼은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위원님.

(○○○ 위원) 너무 잘 들었어요. 공통적인 질문을 조금 할게요. 여기 팀도 막판에 공문이 좀 안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제대로 다 진행이 되었는지, 근데 보니까 진행이 다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문하는 측의 정식적인 분 오셔서 브리핑하고 같이 진행한 부분이 사진으로 보였기 때문에 정확히 된 것 같고요. 통역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했는지, 왜냐하면 정확하게 피드백 받으시면서 가신 건지.

(○○○ 의원) 저희가 캐나다 토론토 갔을 때 가이드 분이 사실은 그곳에서 사셨던 분이어서 이분이 통역을 하는데, 용어를 못 알아들으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전체적인 가이드는 잘 하실 수 있었지만 그런 행정적인 용어를 모르셨는데, 외람되지만 제가 영어를 할 줄 알아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보완을 해서, 그 다음에 전문통역사로 교체를 바로 해서, 그래서 저지 시티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전공하신 분들, 상하수도는 그걸 전공하신 분들로 다시 섭외를 했습니다.

(○○○ 위원) 잘 하셨습니다. 예산변경을 하신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 의원) 없습니다.

(○○○ 위원) 네 좋습니다. 왜 핸드폰과 웹에 노인복지에 관한 부분, 우리 것이 더 좋다고 사진 보여주셨던 것 있지요, 웹에 약한 노인들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찾동이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더 부각시켜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구의원들이 어떤 걸로 해서 구와 같이 협업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짧은 시간이지만, 저도 의원을 하고 연수를 갔다 왔습시다만, 우리 ○○○ 의원님과 ○○○ 의원님 보고하는 것을 보고, 정말 든든합니다. 앞으로 서대문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갈 때 이것보다 더 발전되고, 더 하나를 보더라도 좀 전문성 있게 다녀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사람이 갔다와서 한가지만이 라도 우리 서대문구에 실천한다면 그건 아깝지 않습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서 우리구의 회 의원님들한테 정말 든든함과 밝은 미래를 봤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 위원) 저는 굉장히 부담이 큼니다. 처음 심사위원 위촉을 요청받았을 때도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 많은 고민을 했지만 제가 은평에서 20년, 서대문에 와서 지금 5년 이렇게 하면서 양쪽 의회를 비교도 해 보면서 어쨌든 부담은 되지만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것 같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부담보다는 그 마음에 심사위원을 수락을 했

고, 또 지난번 심사과정에서 말들 몇 가지 드린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신 부분이 눈에 띄어서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이제 조금 아쉬웠다면 시간이 많이 촉박했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우리가 가서 봐야할 기관에서 보고 들어야 할 내용을 사전에 자료를 다 받아서 숙지하고 가는, 그 과정이 하나 더 첨가되어진다면 금상첨화겠다 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 정말 심도있게 보고, 우리 알아야 할 것, 얻어야 할 것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 생각하고요. 이번에 보니까 누구는 어느 부분, 누구는 어느 부분 나누어서 했던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내가 봐야 할 것은 집중적으로 보면서도 또 다른 부분들까지 함께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그런 것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람도 있고, 앞으로 더 멋진 공무국외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위원장) 아주 감사합니다. 이제 3시 반에 하는 주민설명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하시길 바라고, 이제 결과보고서를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위원들) 네

(위원장) 그럼 서대문구의회 캐나다-미국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